

현대삼호重 노조 파업 예고…지역사회 시끌

“조선 불항에도 최고 임금…3년 적자 회사 사정 무시” 지적
노조 “경영실패 책임전가 안돼”…오늘 오후 연대 파업키로

국내 조선업계의 경영 적자에 따른 위기가설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이 조선업중 노조연대(조선노조연대)의 공동 파업에 참여하기로 해 회사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업계 최고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조가 3년 연속 적자인 회사 상황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어서다.

반면 노조측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최근 홍보지를 통해 “9일 오후 조선노조 연대의 공동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교섭타결을 위한 제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조선노조연대는 지난 2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들(사

측)은 올해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같이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기본급 동결을 외치고 있다”며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 뒤편에 돌리는 자본에 맞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한한한시에 일손을 놓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의 조선노조연대 공동파업 참가에 대해 사내 대다수 조합원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부에선 노조 집행부가 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통한 회사 정상화보다는 ‘파업을 위한 파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사측도 지난 7월 초 첫 상견례를 포함해 불과 9번의 교섭에 나섰을 뿐인데 제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동종사에서는 20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측 관계자는 “9

차 교섭 동안 회사의 경영 현황 설명과 노조 요구안에 대해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세부적인 이견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말 그대로 교섭 초기 단계인데 제안안이 없다는 이유로 연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2~3개 업체의 노조만 참여하는 파업에 대해 연대라는 이름으로 동참하는 것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조선노연 연대파업에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 두 곳 뿐이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교섭 타결을 위해 파업 참여 결정을 보류한 상황이며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중공업, STX조선 등과 중소형 조선사 노조들은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노조 대부분은 어려운 회사사정 등을 감안해 파업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 9900원(8.27%)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경우 총 지급액만 2228억원에 이른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14년 기준 7800만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기업 상위 10%인 6700만원을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이다.

고임금을 받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협력사와 지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 등으로 지역 경제가 가뭄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 서남권 최대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의 파업으로 지역경제 자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서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2013년 이래 3년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파업이 회사의 생존에 도움이 될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파업은 결국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해치기만 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남=문병선기자 moon@kwangju.co.kr

금융취약계층 ‘드림셋’ 기회 드립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주·덕진자활센터 2개 사업 30명 규모로 진행

전주시가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돕는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신용불량자 등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 지원(내일기움통장), 채무조정 등 부채 해소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월 최대 110만원 급여)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꾸준한 저축과 부채상환 노력, 연 2회 교육 참여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본인 적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은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가 주관이 돼 농산물 전처리 사업과 한복대여사업 등 2개 사업 총 30명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며, 사업 참여자에게는 2년간 채무상환 유예 및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은 자가 참여를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중위소득 50%이하(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허용, 4인가족 253만 3000원)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고, 취약한 소득구조와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사회적경제과(063~281~2032)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목포대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 준공식

조선해양 맞춤형 인력 양성

대불국가산단에서 조선해양산업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 준공식이 8일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 이낙연 전남지사, 명현관 도의장, 최일 목포대 총장, 박지원·이운석·유영순 국회의원, 기업체 대표 및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는 목포대,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현대삼호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235억원 등 사업비 430억원을 들여 캠퍼스, 장비지원센터, 기업연구관이 들어선 융·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목포대 조선해양관련 6개 학과 300여 명이 이전,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강의가 시작됐다. 대학과 입주 기업이 협력해 계약학과 신설, 학교 교육 공유,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등을 통해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조선산업 분야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조선 관련 학과가 한 곳에 집적돼 정보



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 준공식이 8일 오후 대불국가산단단지에서 열렸다. 박홍률 목포시장,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 이낙연 전남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 목포대학교 최일 총장(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준공을 알리는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공유와 서로 간 화합과 경쟁으로 조선 해양산업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산학융합지구에서 운영해온 특성화고 선취입-후진학 과정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은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채용 연계형 우수모델로 선정됐다. 참여 학생 45명은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인 대한조선

과 유망 중소기업 취업은 물론 목포대학교 조선시스템학과에 입학해 정규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두 기업연구관에 입주한 20여 기업체의 공동 연구개발 및 장비 활용 지원으로 기업체 능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사회복지인 한마당축제

16회 사회복지의 날 맞아

유공자 표창·체육대회

전남도는 8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와 가족,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과 사회복지 증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의식행사가, 2부에서는 사회복지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한마당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이 힘드시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조충훈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이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남도내에는 1만1666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고, 이곳에서 2만5918명이 일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정읍시,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선정

이평면·산내 자연동 등 5개사업

국비 35억9천만원 지원 받아

정읍시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주관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서 5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35억9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사업은 ▲이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6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11억원) ▲웅동 대당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4억9000만원(국비 3억5000만원, 지방비 1억4000만원) ▲산의 민하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4억5000만원(국비 3억 2000만원, 지방비 1억3000만원) ▲산내 자연동 창조적마을 만들기 5억원(국비 3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원(국비 7000만원, 지방

비 3000만원) 등이다.

이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했던 장소이자 말목장이 있었던 이평면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당시 혁명군 집결지의 의미를 되살려 현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웅동 대당마을과 산의 민하마을, 산내 자연동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문화와 체험소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이번 신규사업 5개 선정은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지역민이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준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 주택 / 투 자

-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일양호 대3억 8천만원
- 2.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대7억원
- 3.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전포 대지 315㎡ 임야2,187㎡ 주택96㎡ 공장75㎡ 전포26㎡ 대2억4천만원
-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페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대 5억9천

농 지 / 임 야

- 1.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대지575㎡ 연소재지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2중지구단위계획구역 삼거리코너 4억 9천만원
-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6,331㎡ 혁신도시 근거리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대7억6천만원
- 3.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전(일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자연녹지 판매장 적합 투자유망 12억5천만원
- 4.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전 캄나무 과수원 6,165㎡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대3억원
- 5.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2,975㎡ 2차선도로변 대1억3천만원
- 6.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대2억7천만원
- 7. 나주시 광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대3억2천만원
- 8.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13,530㎡ 연소재지 대3억원
- 9. 나주시 세지면 송채리 담7,610㎡ 2차선국도 투자유망 대1억5천만원
- 10.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1,384,140㎡ (대지, 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전산 적합 대30억원
- 11.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과수원 24,884㎡ 대4억8천만원
- 12.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102,480㎡ 도로양호 일부개간 2차선도로변 투자유망 대3억3천만원
- 13. 광주시 서구 서창동 임야실제 전9,859㎡ 캄나무의 각종 유실수 식재 창고 2동 수도 전기설치 대6억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총장토5가 대지 126㎡, 건평 419㎡, 공사지(기)에 매도 2억5천
- 동구 수7동 대지 422㎡, 건물 1055㎡, 사옥에 적합 6억7천
- 금남로4가 대로변 대지 317㎡, 건평 1236㎡ 은행 4억3천

임대 1억에 월600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 투자 가치 좋음

- 대인동 7층건물 대지 332㎡, 건평 1340㎡
- 은행 4억 PC방, 노래방, 율 · 투름 등 맥주집, 안집이 있음 9억5천
- 광산구 월계동 APT상가들 지하 945㎡, 시설좋은 목욕탕

감정 9억6백 은행 4억9천 교환도 가능 7억천

투자 / 매도 / 교환

- 공장 나주시 남평읍 대지 1493㎡, 건평 588㎡ 3억5천
- 편성전환 원도군 약산면 가사동해수욕장 2684㎡ 1억
- 감전동 미용면 노인시설등 적합부지 자수지열 13362㎡ 7천만
- 무안군 운남면 바닷가 관리지역 11607㎡ 다양한 용도 3억
- 전일주택 나주시 다도면 혁신도시인근 산 13968㎡ 은행3억 대도3천
- 전일주택 담양군 금성면 대지 731㎡, 2600만원
- 수기동 제일오아스빌 53평형 매도 1억4천7백 임대가능
- 중흥동 중흥시장부근 4층 상가주택 대지 177㎡, 건물 482㎡ 1억7천5백
- 전일주택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 건평 73㎡ 은행 3천 대도 1억5백
- 영암군 심요초를 주거지 무화과밭 3180㎡ 매도 2억
- 송하동 그르벨트 입야, 평수는 다양한 요양시설 · 병원을 매도 평당 80만
- 송산동 북흥면 면사무소 인근 백암사, 내장사, 추월산 모두 10분거리 전일생활 특색있는 식당 · 찻집 등 적합 대지 991㎡ 5천9백만원
- 나주시 남평읍 주거지역 3000㎡ 남평대리부근 대로점

가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평당 130만원(12억)

- 장흥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편성 적합지 3458㎡ 교환가능 4억5천
- 대인시인양구 대지 394㎡ 건평 1455㎡ 전세2억 월700선 15억5천
- 고흥군 녹동(도양동) 대지 271㎡ 건평 482㎡ 원룸 · 투름 14세대와 인접, 9월 준공예정 매도 6억8천 조정가능
- 동부경찰서 앞 상가신축최고 요지 188㎡ 매도 10억3천
- 대인동 도로종은 나대지 826㎡ 공사가 8억5천 매도 9억5천
- 남구 노대동 그르벨트 입야 담 89817㎡ 건축허가면적 1449㎡ 수목원 하기있음 투자에 최적 상급바탕 14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총장토5가 광주은행과 수협 부근

(주)전국부동산경매연구소

법인등록번호 200111-0181150
법인사업자번호 650-81-00051
(회사 설립일 : 2003년 8월 26일)

모 집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정년· 명예퇴직 하신 분
- ▲ 법원 경매에 관심있는 주부
- ▲ 자유롭게 출근하면서 법원 경매를 배우실 분 (무료)
- ▲ 수익성 있는 법원경매 물건을 당사와 함께 공동 투자하여 투자금 비율로 이익금에서 분배를 원하시는 분
- ▲ 본인이 직접 법원경매 물건 취득을 원하시는 분

사업의 종류

- 부동산 중개업 (매매/임대)
-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업
- 경·공매 부동산 명도 용역업
- 주택 건설업
- 경락잔금 알선업

방문 및 상담

☎ 062-449-2552 / 010-3441-1308 (주/야)
062-449-2552@hanmail.net (이메일 접수 가능)

미래가치 토 지

도시계획 근거

빛그린 산단 인근

- ✓ 광주도시기본계획
-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 ✓ 해보농공단지

10억대 투자자 급히 모심!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부동산재테크 연구소장 이은진 추천물건

법원경매정보

전국무로사이트

DdM 투데이옥션

NAVER 하프옥션

투데이옥션 1899-9071 하프옥션

공정 감청가대비 30%-70%